

## 워싱턴 벚꽃 구경 여행 후기

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워싱턴에 벚꽃 구경을 갔다 왔다.

### 미국 기차 이용 경험

우리들은 다 차가 없어 기차를 이용하여 다녀왔다. 미국의 기차들은 주로 앰트랙(Amtrak)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내가 탔던 열차는 정시에 운영되었는데 친구는 많이 지연되었다. 미국의 기차는 약간 느린 편이고 평균 속도는 한 60mph 정도 나왔다. 매우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장도 자주 나는 것 같다. 내가 갔을 때 냉방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너무 불편하더라. 가장 나쁜 건 바로 돌아왔을 때 볼티모어에서 워싱턴까지의 구간에 전선이 떨어져서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모든 열차가 다 대폭 지연되었으며 심지어 여러 열차도 취소까지 되었다. 비행기 대폭 지연과 달리 기차 지연은 아무 보상이 없고 무료 변경이나 취소만 준다. 원래 내 열차는 오후 7시 반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7시 반에 막 출발했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기차도 편리한 교통 수단이 될 수 있다.

### 워싱턴의 교통

워싱턴의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지하철과 버스는 미국 대부분 도시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대부분 주요 관광 구역에 도착할 수 있고 나머지 도 버스로 도착할 수 있다. 버스 요금은 2.25달러이며 지하철은 기본 요금이 2.25달러이고 이용 거리에 따라 7달러 쯤의 요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주말과 평일 밤에는 2.25에서 2.5달러의 요금이 나온다. 그리고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벚꽃 시즌에는 관광객이 매우 많으니 길이 복잡하여 운전하면 오히려 느릴 것 같고 주차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숙소

워싱턴은 대체로 안전한 편이지만 동쪽은 서쪽보다 실제로 더 위험하니 동쪽에서 숙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버지니아에서 숙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안전성은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하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숙박하고 지하철도를 타면 워싱턴에 빠르게 갈 수 있다. 우리는 로슬린(Rosslyn)역 근처 호텔에서 묵었다. 주변에 타깃과 세이프웨이드 있고 식당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하철로 20분쯤 워싱턴 중심에 도착할 수 있으니 확실히 편리하더라.

### 벚꽃 구경과 명소 방문

워싱턴 벚꽃 구경 장소는 주로 워싱턴 기념탑과 타이든 베이스 근처다. 벚꽃이 만개하는 동안 관광객들이 매우 많아서 지하철도 붐비는 상태였다. 아침에 바깥에 나왔을 때는 날씨가 많이 흐렸지만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땐 확 맑아져서 다행이었다. 우리는 먼저 워싱턴 기념탑에 갔다. 화장실에 줄이 기니까 출발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권한다. 워싱턴 기념탑에 올라갈 수 있지만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 방문 30일 전과 하루 전에 표가 배포되는 한편 당일에도 적은 수의 표가 있지만 일찍 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기념탑 위에서 워싱턴 핵심 구역을 구경할 수 있고 사진도 잘 나오니 정말 가볼 만 하다. 사람들에게 따라 우리는 다음에 타이든 베이스에 갔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호숫가의 벚꽃이 따라 흔들려 정말 편안하고 즐겁더라. 또한 타이든 베이스 호수 위에서 배도 탈 수 있는데 타려는 사람들이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여유로워야 한다. 백악관도 근처에 있는데 걸어서 약 15분쯤만 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바깥에서만 구경할 수 있고 안에 방문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의원을 연락하여 입장권을 받아야 한다. 보통 방문일 세 달 전에 입장권이 다 나가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국립 박물관도 많이 있고 국립이라 무료로 방문도 가능하다.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과 아시아 예술 박물관을 가 봤다.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주로 다양한 생물과 광석 등 전시되어 있고 아시아 예술 박물관에서는 각각 나라의 예술 작품과 문화제가 진열되어 있다.

그 뒤에 분재 전시회 있다면서 국립식물원(아버티턴)에 방문했다. 분재 전시회가 재미있긴 하지만 큰 꿀벌들이 많아서 너무 무섭더라. 그리고 예상과 달리 미국의 식물원은 특별한 전시가 거의 없고 그 분재 전시회 말고 거의 다 숲과 잔디밭이었으며 교통도 별로 편리하지 않으니 가볼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벚꽃 구경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필요가 없는 것 같다.